

## [대련일일뉴스(7월1일)]

### 대련 공항 확장, 대련시 21억元 투자

대련시는 금년에 大連周水子 국제공항의 3기 확장 공사와 공항 물류센터 건설에 착공하며 투자액은 각각 21억元, 8억元임.

3기 건설은 8만 평방미터의 터미널과 30만 평방미터의 에이프런(주기장)등을 신규에 건설하는 것 외에 도로의 개조 공사도 포함됨. 여객 취급량은 年 1,600만명, 화물 취급고는 3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공항 확장과 동시에 건설하는 공항 물류센터(1期)는 부지면적 16만 5천평방미터. 국제화물 스테이션, 속달 화물이나 창고 보관 시설등이 포함됨

### 1~5월 대련시 해외관광객, 19.8%증가

대련시 통계국에 의하면, 금년 1~5월중 해외 내방객 수는 37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 이 중, 홍콩·마카오·대만의 내방객은 4만 3천명을 기록하였고 외국인 방문자는 20% 증가한 32만 9천명.

국별 방문객은 일본인이 18.9% 증가한 17만 7천명, 한국인은 21% 늘어난 7만 2천명, 싱가폴은 68.1% 성장한 7천명임.

### 대련항집단, 금주항 제 2대 주주로 부상

- 금주항에 19억元 투자 -

금주항을 운영하는 金州港股份은 지난 6월 25일 비공개로 A주 2억 4,600만주를 발행해, 19억 1,142만元을 증자한다고 발표. 조달 자금은 원유 전용의 버스나 곡물 관련의 물류 인프라 건설 등에 충당, 취급능력 확대를 도모.

발행 주식은 大連港集團이 현금으로 모두 매입하며, 이에따라 금주항의 제 2대 주주로 부상. 대련항집단의 금주항 출자 비율은 18.9%임.

1대 주주인 東方集團은 24.33%에서 19.73%, 제 2주주였던 金州港國有資產經

營管理는 **14.21%**에서 **11.53%**로 감소.

금주항은 제비용을 제외한 **18억 8,131만**元을 설비 건설, 유동 자금에 충당할 계획. 원유나 석탄, 곡물등의 화물 취급능력을 확대하여 물류 코스트를 절감.

금주항은 향후 **2**년내 컨테이너 취급고 **100만 TE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환산)**를 목표. 금년 **1~3**월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71.5%** 증가한 **17만 2,500 TEU**를 달성.

### 中鋼, 심양에 북방 거점 설치

광물자원 개발업 전문기업인 中國中鋼集團公司(中鋼集團)가 심양시 遼中縣과 손잡고 沈陽經濟技術開發區에 금속 자원의 가공·배송 기지를 건설키로 합의. 심양을 북방 지역내 금속 자원 기지로 육성할 계획.

동사는 遼中縣 근해경제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의 冶金工業園에 각각 **60**억元, **20**억元을 투자, 폐강재 가공이나 철광 자원의 창고 보관, 강재의 가공·배송 등의 시설을 건설.

총사업비는 **80**억~**100**억元에 달하며 연내에 착공, 시설 가동 후 매출액은 年 **400**억~**500**억元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요녕성 1~5월 자동차 수출, 61.7% 증가

심양세관에 의하면, 금년 **1~5**월 랴오닝성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1만 2,500**대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61.7%** 증가. 금액 베이스로는 **US1**억 **1**천만으로, **31.8%** 증가.

수출 차종은 트럭이 **6,458**대로 전체의 **51.5%**를 차지. 수출액은 **US4**천만.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으로 **1.7**배 늘어난 **5,050**대를 기록.

반면, 수입 대수는 **3,359**대에 머물러, **41.4%** 하락. 다만 소형 4륜 구동의 오프 로드차는 **58.9%** 늘어난 **2,230**대를 기록. 오프 로드차 수입의 국별 현황은 일본이 작년 동기의 **40.8%**에서 **22.5%**로 감소하였고 영국이 **9.8%**에서 **37%**로 급증

### 중국 외화 준비고, US1조 8천억

중국 외화 준비고가 5월말 기준 1조 7,969억 6천만불 기록. 5월에만 신규 증가한 외화 준비고는 US\$403억 2천만불임,

해관(세관) 총서에 의하면, 5월의 중국의 무역흑자는 US\$202억 1천만, 해외 직접투자(FDI)는 US\$77억 6천만. 외화 준비고의 증가는 여전히 무역흑자와 직접투자 합계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월 증가액으로는 4월의 US\$745억 대비 대폭 감소.

5월 외환준비고의 대폭 감소는 4~5월중 인민폐의 상승이 소폭에 머물러 국제금융시장내 투기 자금의 중국 시장 유입이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금년 1~5월중 증가한 외화 준비고는 누계 US\$2,687억으로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

### 대만內 인민폐 환전 가능

대만 당국은 대만內 중국 인민폐 환전 업무신청을 6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 중국 본토 주민의 대만 관광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대만 당국은 아울러, 중국, 대만, 홍콩 관련 금융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음.

대만 당국은 지난 6월 26일 인민폐환전의 해금을 인정하는 「開放臺灣地區辦理人民元現抄賣買業務案」을 가결시킴과 동시에 1회 환전 상한액을 2만원으로 설정. 환전 상한액은 향후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

지금까지 인민폐의 對대만 달러 환전은 「小3通(通商, 通航, 通信)」이 적용되는金門과 馬祖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음. 이번 결정은 중국 본토~대만간 직행편이 7월 4일 개통되어 중국인의 대만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삼성, 세계 최대 액정 패널 天津에서 생산

삼성전자는 양산품으로는 세계 최대인 82인치 액정 패널을 천진공장에서 생산을 개시. 생산제품은 북경 수도국제공항의 제3 터미널에 설치될 예정으로 높이 1.92미터, 중량은 150Kg 가격은 약 100만원임.

동 사에 따르면 **46**인치 이상의 대형 액정 패널의 중국 시장내 판매는 **2006**년의 **1**백대에서 지난해에는 **6**천대까지 확대되었음. 현재, 蘇州 공장내 **2**기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는 **US5**억를 투자,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 우리은행, 심천에 영업소 설립

한국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법인 「우리은행(중국)유한공사」는 심천에 支行 설립. 심천시는 물론 동관, 혜주, 광주등의 주장 델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민폐 업무를 개시할 계획임.

동 지행은 중국 거점으로서로는 처음으로 지점장은 물론, 직원 모두 현지 스텝(중국인)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현지 기업과 시민을 주된 타겟으로 업무 전개.

우리 은행은, 작년 **11**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현재 중국에 **8**개 거점, 심천에 **2**개 거점을 운영중임. **2015**년까지 전국 거점수를 **53**개 소까지 확대할 계획임.

### 上汽와 한국 쌍용 합작, 정부에 설립신청中

상하이 기차와 한국·쌍용자동차가 중국 정부에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하여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上汽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51%**을 소유한 **1**대 주주임.

양사는 절반씩 출자, 합작법인 설립후, 강소성 儀征에 있는 上汽의 제**2**공장에서, 쌍용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임. 생산 차종으로서는 쌍용의 다목적 스포츠차(SUV)인 「카이론」이 유력시됨

### 아시아나항공 대련~인천행 저녁편 추가 운행

아시아나항공(ASIANA)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기존의 오전 **10**시 **55**분 정기편 외에 추가로 매주 월, 화, 목, 금 저녁 **7**시 **20**분 주간 **4**회 저녁편을 증편 운항.

상기 저녁 증편 운항편이 **7**월 **7**일부터는 화요일편 대신에 일요일편으로 운항요일이 변경됨 <끝>